

기술인력 고령화 심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05직업지도(Job Map)>에 따르면 전국 8만3천여명의 인쇄기 조작용인 수입과 주당 작업시간 모두 국내 근로자 전체 평균(166.6만원, 53.5시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76.4만원을 기록했던 평균 수입액이 올해에는 거의 제자리 수준인 177만원에 머물렀으며 월평균 작업시간은 전년에 비해 2.8시간이 감소해 전체 평균치에 비슷해 졌지만 여전히 0.3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비율은 평균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체 규모도 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2005직업지도는 통계청의 '2000 인구주택 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5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의 결과이며 이번에 발표된 종사자수, 임금 등의 수치는 이를 전체 인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단 이 통계의 수입은 경력, 연령, 학력, 산업, 기업규모 등의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5만 표본가구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단순 평가자료이기 때문에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조사인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나 매월노동통계조사와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포함된 것으로 같은 산업에서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특징이 있다.

인쇄기술인력 평균 연령 43세·경력 12.6년

이를 세부사항으로 살펴보면 전국에는 인쇄기 조작용인으로 8만3240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12.1년이고 평균 연령은 43.0세이며 평균 근속년수와 평균 경력은 각각 9.3년, 12.6년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2.0년, 41.9세, 8.5년, 11.3년보다 조금씩 늘어난 수치로 점차 고학력화·고령화되는 우리나라 근로 환경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19.6%로 나타난 여성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8.8%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아직도 전체 평균이 40.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인쇄기 조작용인이 여전히 남성의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반증하면서도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통해 변화의 흐름도 감지할 수 있는 이중성을 보였다. 또한 임금 근로자 비율은 52.4%로 지난해의 56.9%보다 4.5%p가 줄어, 창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가늠케 했다.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각각의 종사자 비율은 83.9%, 13.5%, 2.6%였다.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지난해와 같았으나 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5%p 증가해 중기업 종사자는 그만큼 줄었다.

출판 및 자료편집사무원 145.3만원

출판업종에서는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기획전문가의 수입액은 증가했지만 자료편집사무원의 수입액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지난해 1만1743명에서 27.1% 줄어들어 전국에 8557명이 종사하고 있는 출판물기획전문가는 평균수입액이 245.4만원으로 지난해 226.1만원보다 8.5%, 19.3만원 늘었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15.4년, 평균연령은 39.7세, 평균근속년수는 7.9년, 평균경력년수는 10.7년, 주당작업시간은 49.9시간으로 0.3년 줄어든 평균근속년수만 제외하고 지난해보다 모든 부문이 조금 늘었다. 여성 비율은 41.0%로 지난해보다 3.6%p 줄었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80.3%로 전년대비 9.9%p 증가했다. 이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비율은 소기업 49.1%, 중기업 33.1%, 대기업 17.9%로 지난해의 55.3%, 34.3%, 10.4%보다 중·대기업의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2만829명에서 40.1% 감소해 전국에 1만2476명이 종사하고 있는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은 평균수입액이 145.3만원으로 지난해 145.2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평균학력은 14.3년, 평균연령은 33.2세, 평균근속년수는 4.2년, 평균경

력년수는 6.3년, 주당작업시간은 50.4시간으로 지난해 14.4년, 31.1세, 3.4년, 4.1년, 48.4시간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했다. 단 여성 비율은 56.2%로 지난해 82.7%보다 무려 26.5%p 줄었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91.7%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비율은 소기업 63.4%, 중기업 31.0%, 대기업 5.6%로 지난해의 56.0%, 33.2%, 10.8%에서 소기업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인쇄기 조직원 전체 평균과 비슷

2290만2천명의 국내 총 근로자 월평균 수입은 166.6만원이고 평균학력은 11.8년, 평균연령은 44.1세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9.3년이고 평균경력은 11.4년이다. 주당 평균 53.5시간을 근무하며 여성근로자 비율은 44.1%이고 임금근로자 비율은 60.4%이다. 사업체 규모 비율은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각각 71.2%, 18.9%, 9.8%이다.

인쇄기 조직원의 월평균 수입은 177.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나 여성 비율은 19.6%에 그쳐 전체 평균인 40.9%를 크게 밑돌았다. 이외 평균학력은 12.1년, 평균연령은 43.0년이며 평균근속년수 및 평균경력년수는 9.3년, 12.6년이고 주당작업시간과 임금근로자 비율은 53.8시간, 52.4%로 대체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상점 판매 관리인 가장 많아

2290만2천명의 취업자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 판매·관리인(128만1천명)이었고 상점 판매원(88만2

사업체 규모별 비율(%)

	소	중	대
2004	78.9	18.4	2.6
2005	83.9	13.5	2.6

최근 2년간 인쇄기 조직원 임금 및 고용현황

연도	종사자수(명)	월평균수입(만원)	평균학력(년)	평균연령(세)	여자비율(%)	평균근속년수	평균경력년수	주당작업시간	임금근로자비율(%)
2004	82,884	176.4	12.0	41.9	8.8	8.5	11.3	56.6	56.9
2005	83240	177.0	12.1	43.0	19.6	9.3	12.6	53.8	52.4

천명), 한식 주방장·조리사(55만3천명), 청소원(49만명), 경리사무원(44만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직업별 월평균 세후소득은 기업 고위임원이 69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월평균 수입 166만원6천원의 4.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년 연속 수위를 지킨 기업임원과 격차를 보이며 금융보험관련 관리자가 506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정보통신 관리자(494만원), 변호사(487만원), 항공기 조종사(480만원), 경영지원 관리자(480만원), 의사(471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이 중 변호사는 2002년에 621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2위(557만원)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4위로 밀렸고 한의사는 2002년 4위(473만원), 2003년 7위(437만원) 등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10위권 밖으로 내려앉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제일 높은 직업은 대학교수로 교육년수가 19.7년이었고 생명과학 연구원(18.3년), 대학강사(18.3년), 의사(17.5년) 등 순이었으나 수입은 의사(471만원), 대학교수(392만원), 생명과학 연구원(282만원), 대학강사(143만원) 등으로 엇갈렸다.

중앙고용정보원은 이같이 377개 직업별 취업자수, 임금, 학력, 경력, 여성 취업자비율, 기업 규모 등을 담은 직업지도 14만부를 만들어 전국 중·고교, 대학교, 취업 알선기관 등에 무료로 나눠줘 진로나 직업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스워크넷(youth.work.go.kr)과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와 취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니어넷(senior.work.go.kr)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조갑준 차장〉

●●● 전국에는 인쇄기 조직원으로 8만3240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학력은 12.1년이고 평균 연령은 43.0세이며 평균 근속년수와 평균 경력은 각각 9.3년, 12.6년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2.0년, 41.9세, 8.5년, 11.3년보다 조금씩 늘어난 수치로 점차 고학력화·고령화되는 우리나라 근로 환경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